

I. 상담실적

- 상담기간: 2023. 3. 7.(화) 06:00 ~ 23:00
- 상담건수¹⁾: 842건

II. 주요의견 내용

○ 방송 호평(2명)

-프로그램명 : 「우리말 겨루기」

-방송일시 : 2023. 3. 6.(월) 1TV (19:40-20:30)

월요일마다 부모님과 함께 시청한다. 올바른 우리말 표현을 익힐 수 있는 동시에 재미도 있어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특히 우리말을 퀴즈로 풀어보는 방식이 박진감 넘치고 흥미진진하다. 진행자의 차분하고 편안한 진행도 집중력을 높인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을 통해 우리말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켜 주기 바란다.

○ 출연자 발언 제언(2명)

-프로그램명 :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원탁의 기자들 K’

-방송일시 : 2023. 3. 7.(화) 1R (09:05-10:53)

본인은 전주에 거주하는 청취자이다. ‘원탁의 기자들 K’에 서영민, 조정인, 석민수 KBS 기자가 출연해 국민연금공단의 전주 이전 이후 고급 인력이 유출되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데 한 기자가 전주에 소 냄새 난다, 돼지우리 냄새 난다고 발언해서 전주 시민으로서 불쾌했다. 특정 지역 청취자들이 들었을 때 불편할 수 있는 발언은 주의해주시기 바란다.

III. 청원현황

- 신규청원
 - ‘KBS 뉴스광장’ 외 1건.
- 이슈청원 및 특이사항
 - 없음

※ 참고: KBS홈페이지->시청자권익센터->시청자청원(<http://petitions.kbs.co.kr>)

1) 프로그램 별 인터넷 의견 건수는 집계에서 제외

IV. 일일 상담내용

1. 상담실적 : 총 842건

○ 형태별 분류

전화	인터넷	우편·FAX	방문	ARS ²⁾	계
488	37	-	-	317	842

○ 채널별 분류

1TV	2TV	라디오	DMB	인터넷	非채널	계
365	227	23	-	-	227	842

○ 내용별 분류

의견제시	단순문의	기타	계
150	692	-	842

○ 분야별 분류

방송	기술	경영	기타	계
575	1	59	207	842

시청자 의견	문 의
【편 성】 ○ 「가요무대」 - 편성 제언 ○ 「TV는 사랑을 싣고」 - 후속 방송 요청 【시사·교양】 ○ 「우리말 겨루기」 - 방송 호평 ○ 「아침마당」 - 출연자 섭외 제언 【드라마】 ○ 일일드라마 「태풍의 신부」 - 방송 호평 【라디오】 ○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 출연자 발언 제언 ○ 「김미숙의 가정음악」 - 진행자 호평	【방 송】 ○ 「6시 내고향」 - ‘미나리’ 연락처 문의 38건 ○ 「2TV 생생정보」 - ‘간장게장정식’ 연락처 문의 23건 ○ 「사사건건」 - ‘출연자’ 불만 17건 ○ 「가요무대」 - ‘방청’ 문의 14건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출연자’ 연락처 문의 12건 【기 술】 ○ 「디지털전환」 문의 1건 【경 영】 ○ 「홈페이지」 문의 27건 ○ 「프로그램 구입」 문의 15건 ○ 「전화교환」 문의 10건 ○ 「수신료」 문의 3건 ○ 「주차」 문의 2건 외 2건 【기 타】 ○ 한전 문의사항 포함 207건

2) ARS 항목 상세내용: 제보, 홈페이지문의, 프로그램 구매문의, 출연자 및 출연업체 전화번호 안내

2. 프로그램별 의견

의견	세부내용
[편 성]	
편성 제언	○ 「가요무대」 - 2023. 3. 6.(월) 1TV (22:00-22:55) - 오랜 애청자이다. 원래는 60분 편성이었는데, 2020년에 50분 편성으로 축소됐다. 시청자들의 지속적인 요청 때문인지 한동안 다시 60분간 방송되었으나, 2021년부터 55분으로 축소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갈수록 중장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줄어들고 있는데, 해당 방송을 사랑하는 시청자들을 위해 60분으로 편성을 확대해주기 바란다. ※의견제시자 : 익명
후속 방송 요청	○ 「TV는 사랑을 싣고」 (2명) - 2020. 9. 9.~2021. 6. 30. (수) 2TV 방송. (총 121부작) - 연예인들의 추억 속 인물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으로 매회 감동적으로 시청했다. 그들이 재회하는 모습을 보며 세월이 흐를수록 소중해지는 인연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다. 따뜻한 프로그램이 종영되어 아쉽다. 조만간 새로운 시즌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란다. ※의견제시자 : 익명 외
[시사 · 교양]	
방송 호평	○ 「우리말 겨루기」 (2명) - 2023. 3. 6.(월) 1TV (19:40-20:30) - 월요일마다 부모님과 함께 시청한다. 올바른 우리말 표현을 익힐 수 있는 동시에 재미도 있어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특히 우리말을 퀴즈로 풀어보는 방식이 박진감 넘치고 흥미진진하다. 진행자의 차분하고 편안한 진행도 집중력을 높인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을 통해 우리말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켜 주기 바란다. ※의견제시자 : 익명 외

의견	세부내용
출연자 섭외 제언	○ 「아침마당」 ‘화요초대석’ - 2023. 3. 7.(화) 1TV (08:25-09:30) - 각 코너마다 다양한 게스트들을 섭외해 각양각색의 이야기를 들려주어 늘 즐겁게 시청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저명하고 명망 높은 인사들이 출연해 인생사를 들려주는 ‘화요초대석’을 좋아한다. 그러나 최근 연예인 위주로 섭외가 이뤄져 아쉽다. 이날도 1부엔 가수 박정식 씨가, 2부엔 개그맨 박성광 씨가 출연했다. 1부는 연예인이 출연했다면, 2부에는 다른 분야의 게스트를 섭외해주기 바란다. ※의견제시자 : 익명
[드라마]	
방송 호평	○ 일일드라마 「태풍의 신부」 (2명) - 2023. 3. 6.(월) 2TV (19:50-20:30) - 마침내 강바람(박하나 분)이 강백산(손창민 분)의 비자금 장부를 손에 넣는 데 성공했다. 번번이 당하던 강바람이 강백산을 몰락시킬 결정적 증거를 얻게 돼 통과했다. 극적으로 치닫는 전개가 흥미진진하고, 조연 배우들도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재미를 더한다. 종영까지 재미있게 시청하겠다. ※의견제시자 : 익명 외

의견	세부내용
[라디오]	
출연자 발언 제언	○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원탁의 기자들 K’(2명) - 2023. 3. 7.(화) 1R (09:05-10:53) - 본인은 전주에 거주하는 청취자이다. ‘원탁의 기자들 K’에 서영민, 조정인, 석민수 KBS 기자가 출연해 국민연금공단의 전주 이전 이후 고급 인력이 유출되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데 한 기자가 전주에 소 냄새 난다, 돼지우리 냄새 난다고 발언해서 전주 시민으로서 불쾌했다. 특정 지역 청취자들이 들었을 때 불편할 수 있는 발언은 주의해주시기 바란다. ※의견제시자 : 익명 외
진행자 호평	○ 「김미숙의 가정음악」 (2명) - 1FM (월-금) (09:00-11:00) - 해당 방송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받았던 청취자이다. 지난 2일 방송에서 진행자 김미숙 씨가 청취자들에게 하차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김미숙 씨의 차분하고 따뜻한 음성을 좋아했던 청취자로서 많이 아쉽다. 그동안 좋은 진행으로 감동을 선사한 김미숙 씨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의견제시자 : 오** 외